

Column

교수 칼럼

고전 읽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홍배 (인문대학독어독문학과 교수)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지만 본고사 논술 채점을 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수험생들 중의 상당수가 동일한 전거를 인용하면서 엇비슷한 논지의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술면접을 해보면 십중팔구는 해당 문헌을 읽지도 않은 채 줄거리나 유명한 구절만 외고 있다는 것을 번번이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책을 읽히지도 않고 정형화된 사고만 주입시키는 중등교육과 입시학원의 잘못이다.

이처럼 입시제도에 의해 왜곡된 중등교육의 폐해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대학공부의 기초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고전 읽기 교육일 것이다. 알다시피 고전이란 짧게는 한 시대, 길게는 몇 세기에서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장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지적 성찰과 통찰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지식생산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일수록 지식의 원천인 고전을 거울삼아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5년 고전 읽기 풍토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권장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해제집을 발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취지가 기대만큼 충족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교양교육에 국한해서 보면 적어도 핵심교양과목에서는 학문 분야별 고전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생들이 직접 고전을 독파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문명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학습체험은 장차 어떤 진로를 택하든지 평생학습과 학문탐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우연히 “서울대학교 고전 100선 읽기 모임”이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동아리 활동을 알게 되었다. 200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전공분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한 달에 두 권씩 ‘고전 100선’을 읽어 왔다고 한다. 나는 학생들의 이 놀라운 의욕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의욕적인 활동이 서울대학교 교육의 어떤 결핍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가령 이 모임에 참여하는 한 학생은 “예전에는 공대생도 『자본론』을 읽었는데 지금은 경제학부 학생도 읽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나로서는 문학 교육에도 그 못지않은 결핍이 상존한다고 여겨지는 뼈아픈 발언이다.

이 학생들의 독서과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고전 읽기는 결코 단기 속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장기 속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이 학생들이 가장 오래 읽은 책은 이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인데, 4권을 10회에 걸쳐 읽었다고 한다. 서양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의 모든 장르를 망라하여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있는 이 책은 교양서로 읽어도 무방하지만, 문학예술의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심화학습’과 ‘학제간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읽더라도 저자의 해박한 식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시기의 특정한 정전을 함께 읽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원 텍스트를 읽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면 이 책에서 얻는 교양도 제대로 체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책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문학예술 분야에서 ‘융합학문’의 독보적인 업적인 셈인데, 이 두가지 독서법의 차이는 근래에 회자되는 ‘융합학문’의 성패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융합’이란 말 그대로 차이와 구별을 전제로 하며, 특정한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뒷받침될 때만 진정한 창조적 충동 내지 비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바탕 없이 첨단 기술의 접점들만 추구할 때는 학문이 서류에 편승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다.